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A3로 상향조정

(2014년 2월 7일)

멕시코시티사무소

[등급 변동 현황]

□ Moody's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A3로 상향 조정

- 2014년 2월 Moody's는 멕시코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이에 따라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Aa3) 다음으로 신용등급이 높음.

* 멕시코 S&P, Fitch 신용등급: BBB+

[상향 조정 사유]

□ 정부의 전반적 개혁 추진으로 장기적 경쟁력 향상 전망

- 2012년 12월 출범한 니에토(Pena Nieto) 정부는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 체결 이후 정치 및 선거, 교육, 통신, 조세, 금융,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헌법 및 관련법을 제·개정함.

□ 에너지, 통신 분야 개혁 통한 투자 활성화

- 정부는 대표적인 에너지 국영기업 Petroleos Mexicanos(PEMEX)와 통신기업 Telefonos de Mexico(TELMEX)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두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세계 개혁으로 정부 재정 확충

- 멕시코 정부는 전국 단위 단일 부가세율(16%) 부과 및 소득세율 인상 등의 세계 개혁을 통해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붙임 : 중남미 주요국 Moody's 신용 등급 현황

<붙임>

중남미 주요국 Moody's 신용 등급 현황

등 급	국 가 명
Aaa	
Aa1	
Aa2	
Aa3	칠레
A1	
A2	
A3	멕시코
Baa1	
Baa2	브라질, 페루
Baa3	콜롬비아, 파나마
Ba1	
Ba2	
Ba3	볼리비아
B1	
B2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B3	아르헨티나
Caa1	
Caa2	
Caa3	
Ca	
C	